

みんなくり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生活財生態学と民間信仰研究

メタデータ	言語: Japanese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呉, 文仙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s://doi.org/10.15021/00001865

生活財生態学と民間信仰研究

呉 文仙

1 「2002年ソウルスタイル」展とシンポジウムの意義について

人々は時に、自分の周りの慣れ親しんだ現象について、何の価値も関心も感じないものである。その上、それを通して自分を鑑みることが出来ることにさえ考えが及ばなくなってしまふ。だが、他の人が住む家やその家のモノ（生活財）を通して違った暮らしにふと接する経験というものは、自然に自分を振り返らせる思考過程を誘発させる。そのような意味で「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の展示とシンポジウムは、生活財生態学としての研究活動が、第一段階の結実を見たというばかりか、他人の暮らしぶりを通じて自身を振り返らせるという鏡の役割をしたという点に、大きな意義があったと評価できる。

シンポジウムの主題となった生活財生態学の重要な学問的目的のうち一つは、結局のところ人間と人間の文化理解に直結する。そのような点から、空間とモノはその中に全てを抱え込んでおり、一つの所有者のような役割をすることが出来るが、それ自体で全てを曝け出すことが出来ない基本的な限界を持っている。その限界を超え、より深い段階から人間と文化を理解するためには、人間の考え（概念）と人間同士のあらゆ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活動など、物理的に存在しない諸般のものを含めなくてはならない。そのため、目に見えるものと目には見えないものを互いに連結させて理解する必要性が提起される。これと関係し、筆者の関心分野である伝統的な民間信仰が現在の生活文化の中でどのような様相を見せているか、またこれを研究するための研究方法などについて、生活財生態学と関連づけて考えてみることにする。

2 生活財生態学と現在の民間信仰の存在様相について

統計庁の資料によれば、2000年度の住宅形態別分類においてアパートは約52%を占めた。この数値は住宅形態別分布でもっとも上位を占めるものである。しかしその数値が表している通り、住宅形態別分布でアパートが最も上位にあるという点の他にも、必ず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る。それは、住宅形態としてアパート以外の集合住宅や多世帯住宅ないし一戸建て住宅の場合であっても、その内部構造においてはアパートと大きく違わないという点だ。これは地方の場合でも同様である。地方でも、伝統的な住居空間をそのまま維持しているというよりは、部分的に、ないし全面的に住居空間を改善している。結局は大部分の住居空間がアパート化したか、アパート化していつていると言え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な住居空間の変化の中でも、地方にある集落には、今でも伝統的な共同体性が残っている。集落単位の契や婚姻式（結婚式）や葬礼式（葬式）などでは、集落の全構成員が進んで自分のことのように考え、手を貸す姿は依然として残されている。だが都市の生活文化は匿名性と閉鎖性が比較的強い。都市では、住居形態が密集しているにも関わらず、隣人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一般に最小限の礼儀を守る程度だけ行われ、その他に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自体がまったく成立しない場合もある。一人暮らしの老人たちが多くなり、近所で死人が長く放置されてなかなか発見されなかったというようなことが発生して衝撃を与えることもある。よってアパートを一つの共同体として考え、活発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成立する場にしようという自発的な動きも見られるが、今のところはまだ稀な現象だ。このような変化の中での民間信仰の姿とはどのようなものであろうか？

地方の場合、地域や各家庭によって差が見られるものの、伝統的に民間信仰はうまずたゆまず伝承されている。各集落を単位として集落共同で信じる信仰対象に祭祀を執り行う洞祭や、家内の奥の間（アンバン）・板の間（マル）・台所・甕置き台（チャンドクデ）・便所（化粧室）・玄関門（大門）などに神（神霊）が宿っており、家内を見守ってくれるという信心である家神信仰が、その代表である。実は1970年代以前に、このような民間信仰の伝承はとても活発だった。現在の地方で民間信仰がたゆまず伝承されているとは言え、その多くが消え去った理由は1970年代のセマウル運動の一環であった迷信打破や家屋構造改良、都市への離農現象などにより消滅したり、あるいは弱化したためである。それにも関わらず、都市と比較するならば、その伝承が総体的にずっと優位にある。これとともに伝統文化に対する各界の関心と自覚、大衆媒体の影響などにより、自分たちが信じている民間信仰に一種の文化財的な価値を賦与したり、再創造する傾向も注目される。

都市の民間信仰の様相は、多少複雑だ。都市の民間信仰について明らかにするため生活財生態学には適切な面もあるが、一方で不足する面もある。実際には大部分の都市生活者たちにおいて、民間信仰は外形的にはほとんど探し難いように思われる。だがその内幕を見れば、何もなく見えるところにまったく違った様相が広がる。都市で生活する人々の中には、アパートに居住していても、極めて稀に伝統的住居空間である台所に祀っていた「竈王神」（炊事における火の神）を西洋式のシンクに祀る事例がある。また慶尚北道の安東のような一部の地域では、アパートに引っ越してなお、家族の安全のために家神信仰の一つである「ヨンダンジ」（龍神を祀る壺）を祀ってもいる。このようなことは、極少数の事例とか一部地域に限って見られる現象であるだけであり、現在の生活文化の中にある民間信仰の全体像ではない。現在の生活文化の中に含まれている民間信仰の姿は、変化し新しい様式に展開されていたり、目に見えないが広範囲にわたって観念的に存在する様相を見せる。以前には宗教的な要求を達成するために使用されなかつ

た別の媒体を通して存在しているためである。

第一に、変化し新しい様式を表すということについて論じてみよう。民間信仰儀礼には、宗教性のみならず、政治的・娯乐的・祝祭的な機能などが含まれている。だが今では、集落単位の洞祭で住民たちが自発的に参加したり再創造したりすることによって開催する場合を除いては、祝祭的だとか娯乐的な雰囲気を持つ儀礼が稀となっている。儀礼の過程を通じて祝祭的な雰囲気を感じ、それを通じて更に和合する機会が生じていたものだが、そのような状況は多くの変化を経たためである。心を合わせたり積極的に参加するという様相は、非常に稀なものとなった。

だが、個人や一つの家という単位で開く各種の民間信仰儀礼や宗教的要求に関する活動などにおいては、宗教の機能的側面だけが強化されて存在しているというのが、もっとも大きな特徴である。特に巫俗にすがろうとする人々は、それによって現在や未来についての不安定・不安感などを祓う手段として、民間信仰を考えているケースが大部分であり、巫堂（シャーマンの一種）たちは、本来の宗教的任務に忠実であるよりも、クツ（巫儀）を依頼する人々から過大な費用を受け取ることに高い関心を持っている。一つの職業として、神憑り（降神）と無関係であっても、数ヶ月間の巫堂養成学院での学習だけによって巫堂になることもある。よって、巫俗の墮落でもってこのことを説明づける者もいる。今や巫堂たちは、人が多く密集する都市に集中しており、主に占いを行うことに重点を置いている。これらの儀礼やこれらにすぎる一種の「信徒数」は、既成の宗教に比べると決して少なくはないものの、よく見えてはこない。表立って儀礼（クツ）を設けず、主に都市の外郭地域にあるクツ堂（クツを行うための施設）を利用するためである。科学文明が発達し合理的な生活が追及される裏で、巫俗のような宗教現象が活発に行われていることを把握するためには、家という枠を抜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ち過去に一つの集団単位で、家内で行っていた民間信仰儀礼が、今では家を抜け出した新しい空間で行われているという点に注目する必要性が生じたのである。

第二に、目に見えないものの、観念的に広範囲に残っているものがある。吉日を選んだり厄運を祓うために行う行動が、この範疇に属する。引越や結婚式に際して、良くない日を見極め、吉日を選ぶという過程で登場する概念は、広い範囲で持続している。このような事実は、時に結婚式場が大混雑したという内容で、新聞記事になったりもする。また、縁起の悪いことが起きたり望ましからぬ訪問者があった時に門の外に塩を撒くという行為は、ドラマでもよく見られることであり、このような観念の中から出ていることである。この場合に、塩は人間の食べ物としての生活財であると同時に、宗教性が加味された生活財だと言える。

第三に、オンライン（on-line）化はここ数年の間に、目に見えて浸透している現象である。現代の生活文化の中では、宗教的な要求を充足させる行為も電話やインターネットへのアクセスを通じて行われているのである。そしてこれは毎日接する新聞を通じて

宣伝される。このことに代表されるような宗教的行為は、宗教の性格の中で、主に福を願うという側面だけを追求する現象として表面化している。このようなオンライン化には、匿名性の保障だけでなく、居ながらにして宗教的要求を充足できるという便利さの追求ともうまくマッチしている。

民間信仰のこのような存在様相を明らかにするものとしては、生活財生態学は部分的に不足する点がある。民間信仰のような分野は人間の概念に属する領域であり、この概念的な部分は必ずしもモノを通して現れるものではないからである。まさにこの点が生活文化研究としての生活財生態学に補足が必要となる部分だ。

3 生活財生態学と民間信仰研究について

生活財生態学による民間信仰についてのアプローチは、二つの段階に分けることが可能だ。まず、空間とモノを通して洗い出される民間信仰自体の資料を用いるというアプローチだ。都市化が進行する現在の生活文化の中で、民間信仰は純粋に宗教的目的を持つ神体や生活財として表れることがある。これらに関する多様な事例のサンプリング過程を通して、それらが持つ共通性と多様性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民間信仰の持続的な面と変化する面を掘り下げてみるのが可能だろう。

その次の段階としては、生活財として存在しないもの、つまり概念的なもの、オンライン化され行われているもの、家を抜け出して他の場で行われている各種の儀礼が注目対象となる。この部分は、生活財生態学を通して掘り下げ難い部分であり、学際的な研究が必須となる。

생활재 생태학과 민간 신앙 연구

오 문선

1 「2002년 서울 스타일」 전시와 심포지움의 의의에 대하여

사람들은 종종 자기 주변의 익숙한 현상에 대해 아무런 가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그것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득 다른 사람이 사는 집과 그 집의 물건(생활재)을 통해 또 다른 삶을 접하는 경험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사고과정을 유발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2002년 서울스타일 전시와 심포지움은 생활재생태학으로서의 연구활동이 첫단계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는 모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심포지움의 주제였던 생활재생태학의 중요한 학문적 목적 가운데 하나는 결국 인간과 인간의 문화이해와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공간과 물건은 그 안에 모든 것을 담고 있어 하나의 소유주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줄 수 없는 기본적인 한계를 지녔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심화된 단계에 이르러 인간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관념)과 인간끼리의 모든 의사소통활동 등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서로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관심분야인 전통적인 민간신앙(民間信仰)이 현재 생활문화속에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또 이것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방법 등에 대해 생활재생태학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생활재생태학과 현재의 민간신앙 존재양상에 대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에 아파트는 주택형태별 분포에서 약 52%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주택형태별 분포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치가 나타나고 있듯이 주택형태별 분포에서 아파트가 가장 우위에 있다는 점 외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주택형태로서 아파트 이외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혹은 단독주택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부구조에 있어서는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시골에서도 전통적 주거공간을 그대로 유지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주거공간을 개선시켰다. 결국 대부분의 주거공간이 아파트화되었거나 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공간의 변화속에서도 시골에 있는 마을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공동체성이 남아있다. 마을단위의 계(契)나 혼인식(婚姻式, 결혼식)이나 상례식(喪禮式, 장례식) 등을 맞이해 모든 마을사람들이 나서서 자기일처럼 생각하고 일손을 돕는 모습이 여전하다. 그러나 도시의 생활문화는 익명성과 폐쇄성이 강한 편이다. 도시에서는 밀집된 주거형태에도 불구하고 이웃간의 의사소통은 최소한의 예절을 지킬만큼만 이루어지는 편이고, 때로는 의사소통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이웃에서 죽은 사람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발견되는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하여 충격을 주는 일도 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자는 자발적 움직임들도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드문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민간신앙의 모습은 어떠할까?

시골의 경우 지역이나 각 가정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전통적인 민간신앙은 꾸준히 전승된다. 각 마을을 단위로 하여 마을에서 공동으로 믿는 신앙물에 제사지내는 동제(洞祭)라든가 집 안의 안방, 마루, 부엌, 장독대, 변소(화장실), 대문 등에 신(신령)이 깃들어 있어 집안을 보살펴 준다는 믿음인 가신신앙(家神信仰)이 대표적이다. 사실 1970년대 이전 이러한 민간신앙의 전승은 굉장히 활발했었다. 현재 시골에서 민간신앙의 전승이 비록 꾸준히는 하나 많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의 일환이었던 미신타파나 가옥구조개량, 도시로의 이농현상 등으로 소멸되거나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비교한다면 그 전승이 상대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자각(自覺), 대중매체의 영향 등으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민간신앙에 일종의 문화재적 가치를 부여하거나 재창조(representation) 하는 경향도 주목 된다.

도시의 민간신앙양상은 다소 복잡하다. 도시의 민간신앙을 살피기 위해 생활재생태학은 적절한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사실 대부분의 도시생활자들에게 민간신앙은 외형적으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막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 도시생활하는 사람들중에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드물게 전통적 주거공간인 부엌에 모셨던 '조왕신'을 서양식인 싱크대에 모시는 사례가 있다. 또 경상북도 안동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로 이사가서도 가족의 안녕을 위해 가신신앙의 하나인 '용단지'를 모시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례이거나 일부 지역에 국한해 볼 수 있는 현상일 뿐 현재의 생활문화속에 있는 민간신앙의 전체 모습은 아니다. 현재 생활문화속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신앙의 모습은 변화하여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거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광범위하게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전에는 종교적 육구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던 또 다른 매체를 통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변화하여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자. 민간신앙의례에는 종교성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오락적, 축제적 기능들이 함유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단위의 동제(洞祭)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재창조되어 개최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축제적이거나 오락적 분위기를 담는 의례가 드물다. 의례과정을 통해 축제적 분위기를 느끼고 그것을 통해 더욱 화합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 많은 변화를 했기 때문이다. 함께 정성을 모으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은 희미해졌다.

그러나 개인이나 하나의 집 단위로 열리는 각종 민간신앙의례나 종교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 등에는 종교의 기능적 측면만이 강화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무속(巫俗)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현재나 미래의 불안정, 불안감 등을 떨치고 나가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무당들은 본연의 종교적 임무에 충실하기 보다 굿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받아내는 일에 관심이 많다. 하나의 직업으로서, 신내림현상(降神)이 없어도 몇 개월간 무당양성학원에서의 학습만을 통해 무당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혹자들은 무속의 타락화로 그것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제 무당들은 사람이 많이 밀집된 도시에 집중해 있고 주로 점(占)을 치는 일에 치중한다. 이들의 의례나 이들에 의지하는 일종의 신도수는 기성종교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의례(祀)를 벌이지 않고 주로 도시외곽지역의 굿당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생활이 추구되는 이면에 무속과 같은 종교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선 집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가능하다. 즉 과거에 하나의 집안 단위로, 집안에서 행했던 민간신앙의례들이 이제는 집을 벗어난 새로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둘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념적으로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좋은 날을 택하거나 액운을 물리치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집을 옮기는 과정이나 혼인식에서 좋지 않은 날을 가리고 좋은 날을 택하는데 나타나는 관념은 광범위하게 지속된다. 이러한 사실은 가끔씩 예식장이 복세통을 이뤘다는 내용으로 신문에 기사화 되기도 한다. 또 재수가 없는 일이 생겼거나 재수없는 사람이 다녀갔을 때 문 밖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드라마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도 그러한 관념속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 경우 소금은 인간의 음식으로서의 생활재인 동시에 종교성이 가미된 생활재이다.

셋째로 온라인(on-line)화는 최근 몇년사이에 두드러져가는 현상이다. 현대의 생활문화속에는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위도 전화나 인터넷 접속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 대하는 신문을 통해 광고된다. 이와 같은 종교적 행위는 종교의 성격 가운데 주로 기복적 측면만을 추구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온라인화에는 익명성의 보장 뿐 아니라 자기가 있는 자리

그대로에서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편리함의 추구와도 잘 맞아떨어진다.

민간신앙의 이러한 존재양상은 살피기 위한 시도로써 생활재생태학은 부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민간신앙같은 분야는 인간의 관념에 속한 영역이고, 이러한 관념적인 부분이 언제나 물건을 통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생활문화 연구로서 생활재생태학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3 생활재생태학과 민간신앙연구에 대해

생활재생태학을 통해 민간신앙에 대한 접근은 두 단계로 나뉘질 수 있다. 우선 공간과 물건을 통해 드러나는 그 자체의 자료를 통한 것이다. 도시화 현재의 생활문화속에 그것들은 순수하게 종교적 목적을 지닌 신체(神體)나 생활재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의 다양한 사례의 샘플링(sampling) 과정을 통해 그것들이 갖는 공통성과 다양성이 밝혀질 수 있고, 민간신앙의 지속적인 면과 변화의 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는 생활재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 즉, 관념적인 것, 온라인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 집안을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의례들이 주목대상이다. 이 부분은 생활재생태학을 통해서 살피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학제간 연구가 필수적이다.